

바이오벤처 제넥셀 “세인전자 인수”

인수금액 60억원 중 12억원 자체출자 ... 초파리 염기서열 분석 유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이 설립한 유망 바이오벤처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키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넥셀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형질전환 초파리를 제작해 치매, 파킨슨씨병 등의 유전자 및 치료제를 개발중인 바이오기업으로 2000년 3월 KAIST 생명과학과 김재섭 교수와 정종경 교수, 유옥준 교수 등이 설립해 지분의 42%를 보유하고 있으며 KAIST, SK, 한국기술투자, 무한기술투자 등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제넥셀은 7월25일 가정용 전자혈압계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세인전자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세인전자는 매출이 180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재섭 대표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통해 세인전자의 상호를 제넥셀로 바꾼 뒤 주식교환을 거쳐 경영권 인수 및 합병을 마무리지를 계획이며, 소요자금 60억원 중 12억원은 자체 출자했으며 나머지는 투자조합에서 출자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바이오기업의 증시 상장은 상장기업이 바이오벤처에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였지만 바이오벤처기업이 코스닥기업을 흡수한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 및 전자의료기기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넥셀은 그동안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게놈 검색용 초파리 10만종류를 완성했으며 염기서열 분석까지 마친 상태로,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 성과는 Novartis, Merck 등 다국적 제약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의 바이오기업,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 제넥셀은 치매, 파킨슨씨병, 당뇨, 비만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 및 화합물질을 개발했으며 옥스퍼드, 예일, 버클리 등 40여개 대학에 자체 제작한 형질전환 초파리를 공급하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상업적 권리를 독점 소유키로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07/26>